

#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이 초산모의 모성정체성과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채 미 영<sup>1)</sup> · 황 문 숙<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초기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의 일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상적인 모-아 관계를 발전 유지하고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의 기초가 되므로(Chae, 2005), 초산모의 모성역할수행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모성역할수행은 신생아의 출산과 더불어 저절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개인적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학습을 통해 획득된다(Kim et al., 2005).

모성역할획득이란 확립된 역할범위 안에서 모성행위를 통합 시키며, 어머니 역할에 대한 능력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모성 정체성과 모성역할수행으로 집약시킬 수 있다(Lee, 1992; Mercer, 1985; Walker, Crain, & Thompson, 1986). 그러나 양육경험이 없는 초산모의 경우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모성역할 획득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2005). 특히 최근에는 핵가족과 저출산 문화로 양육에 대해 보고 배우는 기회가 줄어들어 더욱 문제가 된다. Lee(2011)에 의하면 지난 30년 동안 서울의 평균 가족수가 4.47명에서 2.7명으로 줄었다. 이와 같은 가구원수의 감소는 가사서비스 등에 대한 주부의 부담은 감소시켰으나 모성역할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Jang & Jeong, 2003).

초산모의 경우 모성역할수행에 대한 어려움은 자신의 아기에 가졌던 환상이나 꿈이 좌의식이나 노여움으로 전환되어

부모됨이나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초래 할 수 있다(Kang, 2001). 또한 모성역할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영아에 대한 따뜻하고 민감한 반응적 보살핌의 결핍과 부적절한 모-아 상호작용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궁극적으로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문제의 원인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산욕초기의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되도록 간호중재를 제공하여 모-아 관계를 긴밀하게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Lee, 2006). 이에 임신기간 동안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인 산전관리가 시행되면서 다양한 전문가의 지도를 받게 된다. 그러나 출산 후에는 어머니와 아기가 퇴원을 하게 되면 건강관리 체계로부터의 산후관리가 중시되며, 최근에는 조기퇴원으로 분만 후 만 24~48시간 이내에 대부분의 산모들이 퇴원을 하게 됨으로써 모성역할을 스스로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므로, 추후관리 제도가 완전히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퇴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Koh & Lim, 2002). 퇴원 후 지속적인 모-아 간호는 간호서비스의 향상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성의 모성정체성과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에 대한 위기를 피하여 여성이 일생에 안녕을 유지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이에 Hampson (1989)은 산욕기 초산모의 모성역할을 증진시키는 간호중재를 위한 방안으로 가정방문과 지지그룹형성, 전화상담 등을 제언하였다.

가정간호가 모성역할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e(1992)는 모성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중재

주요어 : 가정간호, 모성정체성, 모성역할

\* 위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석사학위논문입니다.

1)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2)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E-mail: msyellow45@hanmail.net)

투고일: 2011년 8월 22일 수정일: 2011년 9월 23일 게재확정일: 2011년 9월 29일

가능한 요인으로 지지간호를 들면서 전화상담이나 가정방문을 통한 지지간호를 제안하였다. Kim(1998)도 산육기 초산모의 모성정체성과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에 대한 수준이 낮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산모의 모성정체성과 영아 돌보기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산전관리와 퇴원교육뿐 아니라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율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Lee, Cho와 Kim(1998)의 연구에 의하면 산육기 산모의 70%가 산전 진찰을 받은 병원중심의 가정간호를 적극 원했고 퇴원 2주 이내, 2회 이상의 경험 많은 간호사를 통하여 신생아관리에 중점을 두는 신체적 정신적 간호를 포함한 총괄적인 간호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산육기 초산모를 대상으로 가정간호와 관련하여수행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정간호요구도를 파악하여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제안(Yoo, 2001)한 조사수준의 연구로 실제 가정간호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율성을 평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산육초기 초산모의 모성정체성과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을 확인한 후 산육기 초산모를 위해 가정간호가 제고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향후 초산모의 가정방문 시 적절한 간호교육 및 중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산육초기에 이들의 모성정체성과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의 향상을 위한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이 모성정체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이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연구 가설

-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모성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이 높을 것이다.

### 용어 정의

#### ●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

모성역할은 정서적인 요소로서 어머니다운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돌봐주고 키우고 싶은 욕구를 뜻하는 “motherliness”와 신체적 돌봄 행위로서 실제적인 어머니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영아 돌봄에서 요구되는 정신생물학적 기능 수행기술을 의미하는 “mothering”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Lee, 1982). 본 연구에서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은 초산모를 대상으로 퇴원 후 가정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별, 시범, 실습교육을 말하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생아 목욕시키기, 수유하기, 기저귀 갈기, 신생아 주변 환경정리, 아기의 이상증상 발견 및 간호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

#### ● 모성정체성

모성정체성은 어머니와 영아간의 관계체제에서 어머니로서의 인식과 정서를 말하며(Walker & Mongtgomery, 1994), 본 연구에서는 Walker(1981)가 발전시킨 형용사 어의구별 척도를 Koh(199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값을 말한다.

#### ● 모성역할수행 자신감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은 모성역할 획득의 실증적 지표로서, 실제적 기술적 측면의 아기돌보기 활동으로 수유하기, 안아주기, 옷 입히기, 닦아주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트림시키기, 그리고 영아발달과정 및 영아행동에 대한 관찰과 이해 같은 과업중심적인 활동을 포함하며 이러한 모성기 발달과업에 대한 대처능력에 어머니 스스로가 지각하고 있는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Rubin, 1967). 본 연구에서는 Pharis(1978)의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의 측정 도구인 13 문항을 토대로 Park(1991)이 수정 보완한 35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개념적 기틀

Meleis(1975)는 질병으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으면 역할이 변화되거나 성장 발달의 과정에서 새로운 역할이 발생하게 되며 그 역할에 대한 기능 결핍으로 비기능적인 역할전환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이에 새로운 역할에의 충족을 위해서 역할 모델링, 역할 리허설, 관련 그룹과의 만남이란 세 가지 방법으로 의미있는 사람과 의사소통 하도록 함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역할수행의 기회를 제공받아 역할이 보충되고 획득된다는 역할결핍과 역할보충이란 예측과 처방의 패러다임(Role Insufficiency and Role Supplementation: A predictive and Prescriptive Paradigm)을 제시하였다.

첫 아이의 분만은 여성에게 위기의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어머니로서의 자존감이 저하

되고 모성역할수행에 자신감을 잃게 되어 역할적응이나 발달 과제를 완수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초산모의 경우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역할이 결핍되고 비기능적 역할전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산모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간호사가 7일 이내에 전화나 가정방문을 통해 초산모를 만나서 그들이 모성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역할 모델링과 역할 리허설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의미있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어머니로서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행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하여 모성역할을 획득하고 모성역할에 적응하도록 돕는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모성역할 획득은 확립된 역할범위 안에서 모성행위를 통합시키며 어머니 역할에 대한 능력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모성정체성과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을 모성역할획득의 지표로 집약할 수 있다(Lee, 1992; Mercer, 1985; Walker, Crain, & Thompson, 1986).

본 연구에서 Meleis(1975)의 역할결핍과 역할보충이란 예측과 처방의 패러다임을 토대로 연구변인들의 관계를 개념적 기틀로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Figure 1>.

**연구 방법**

**연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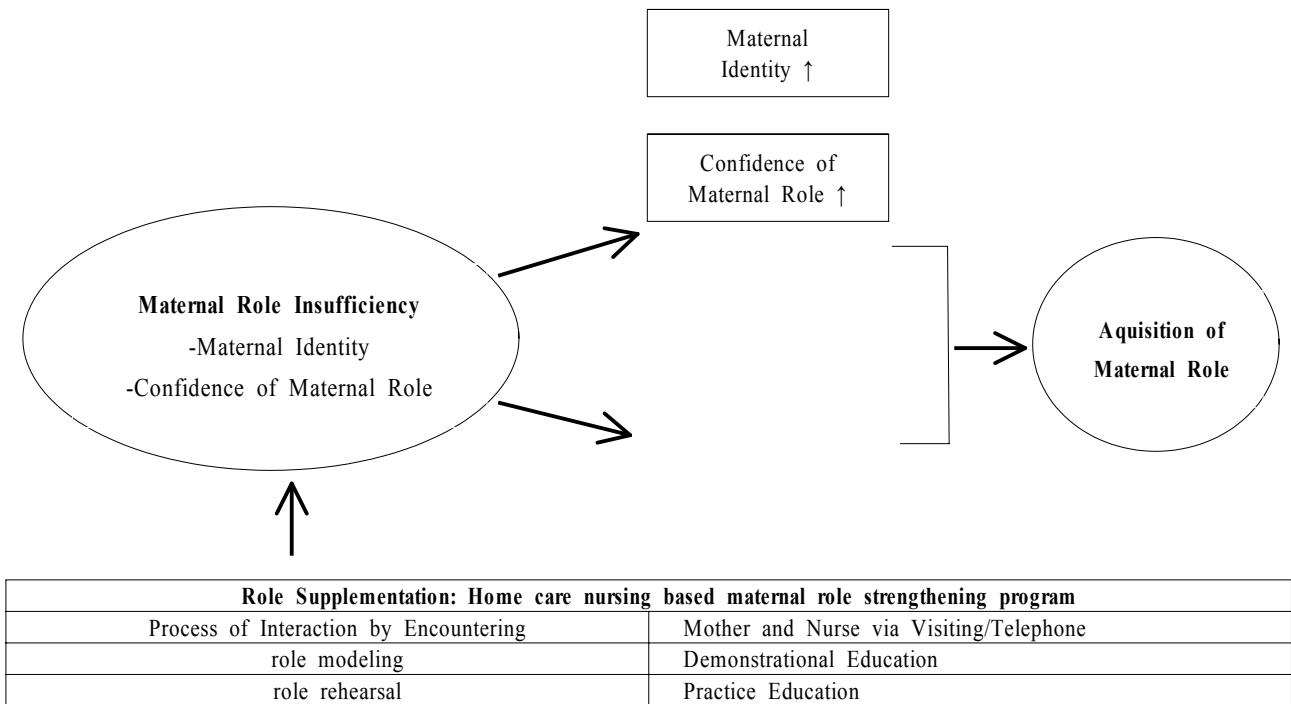
본 연구는 초산모에게 산욕초기에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before-after design)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Quasi experimental study)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서울 소재 S전문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정상 질식분만 후 퇴원한 초산모로, 임신 및 분만과정 중 산모와 신생아에게 문제가 없으며, 아기의 체중이 2.5kg 이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자 수는 검정력 0.8, 효과크기 0.4,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Cohen의 공식(Lee et al., 2009)을 사용하여 산정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26명이면 가능하였다. 하지만 탈락자를 예상하여 대조군 29명, 실험군 29명으로 총 58명을 임의 표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탈락된 대상자가 없어서 58명 모두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 도구**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 모성정체성 측정도구

모성정체성은 Walker(1981)에 의해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성과 나의 아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평가적인 영역으로 발전시킨 도구를 Koh(1995)가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어머니로서의 자기정체성은 양극에 대립시킨 형용사를 이용하여 11항목의 7점 척도로 개발된 도구로서 최저 11점에서 최고 77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정체성이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아기에 대한 정체성 역시 양극에 대립시킨 형용사를 이용하여 6항목의 7점 척도로 개발된 도구로서 최저 6점에서 최고 42점까지의 점수 분포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48 이었다.

● 모성역할수행 자신감 측정도구

초산모의 모성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 Pharis(1978)의 아기돌보기 활동에 대한 Self Confidence Scale 13문항을 토대로 Park(1991)이 개발한 35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구성은 ① 안위와 안전 ② 영아의 행동 ③ 수유관련 ④ 위생 관리 ⑤ 건강과 질병의 5개 하위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항목별로 “거의 자신 없다”의 1점에서, “아주 많이 자신이 있다”의 5점까지 측정하는 5점 척도로 최저 35점부터 최고 17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59 이었다.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발

산육초기 초산모의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의 개발은 문헌을 기초로 예비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전문가 그룹의 내용타당도를 확인받은 후 최종프로그램을 확정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의 개발은 우선 산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의 교육 자료들과 신생아, 산육부에 대한 선행문헌을 토대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교육 요구에 관한 내외 문헌을 바탕으로 아기돌보기와 아기의 건강문제들, 추후관리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가 신생아실에 근무하면서 산모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목욕시키기와 체대관리 부분은 실제 아기를 돌보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교육내용에 첨부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기돌보기에 관한 내용은 수유하기, 정상 대소변양상, 기저귀 갈아주기, 기저귀 발진, 목욕, 배꼽소독, 눈, 귀, 코, 손발톱관리, 실내온도 및 습도유지, 아기가 우는 이유 알기이며, 아기의 건강문

제들에 관한 내용은 황달, 구토, 딸꾹질, 설사, 고체온, 경련, 아구창,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신생아 심폐 소생술이며, 추후관리에 관한 내용은 예방접종과 성장발달과정을 담고 있다.

작성된 원고는 간호학 교수 1인, 산과병동 수간호사 1인, 신생아 전문의 1인의 자문을 받았으며, 초기 산육기 초산모 2인을 대상으로 내용을 먼저 읽게 한 후 내용을 어머니가 이해하기 쉬우면서 친근한 용어로 수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타당도는 소아과 전문의 1인, 간호학전공 교수 1인, 아동간호학전공 교수 1인을 통해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교육내용은 2회 가정방문과 필요시 전화방문을 통해 산모와 간호사의 의미있는 만남을 갖는 상호작용과 간호사가 역할 모델이 되어 아기돌보기에 대한 시범을 보이는 교육 그리고 교육받은 내용을 초산모가 되시범을 보이면서 문제있는 부분을 수정받는 역할 리허설로 모성역할의 결핍부분을 보충하는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프로그램 적용방법

퇴원 2일 후 1차 중재에서는 연구보조원인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하여 초산모에게 방문목적 및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절차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자가 개발한 신생아 돌보기에 관한 소책자를 이용하여 수유하기, 정상 대소변 양상, 기저귀 갈아주기, 기저귀 발진, 목욕, 배꼽소독, 눈, 귀, 코, 손발톱관리, 실내온도 및 습도유지, 아기가 우는 이유, 아기와의 대화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였다. 목욕, 배꼽소독, 기저귀 갈기, 수유하기는 아기인형으로 시범을 보인 후 어머니가 직접 자신의 아기에 대해 수행해보도록 한 후 이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어머니의 느낌이나 기분을 표현하도록 격려했다(소요 시간 40분).

퇴원 1주일 후 2차 중재에서는 연구보조원인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하여 2차 방문목적 및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절차를 설명한 후 2차 중재에 앞서 현재 어머니의 기분 및 정서반응을 표현하게 한 후 그 감정에 대해 지지하였다. 충분한 감정지지를 한 후 1차 중재에서 교육된 아기목욕, 배꼽소독, 기저귀 갈기, 수유하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아기에게 수행해보도록 하고 이를 관찰 후 필요한 부분을 교정해주었다. 아기의 황달, 구토, 딸꾹질, 설사, 고체온, 경련, 아구창과 같은 질병에 관련된 내용을 소책자를 이용해 설명하였다. 이 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신생아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은 소책자를 이용하여 설명한 후 아기인형으로 시범을 보이고 초산모가 인형에게 수행 연습해 보도록 하였다. 또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추후 관리, 예방접

종일정, 아기의 성장발달에 있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중재가 끝난 후 다시 한 번 현재 아기 돌보기와 건강에 있어 어려움을 표현하도록 한 후 재교육하고 격려하였다. 추후 어려움 발생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담당자와 문의 방법을 안내해주었다(소요시간 40분).

### 윤리 및 법규 준수

본 연구는 한국임상시험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병원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terna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으며 헬싱키 선언 및 ICH GCP지침에 따라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동의는 연구보조자인 자료수집자가 연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한 것,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언제든 중지할 수 있다는 것, 연구중지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는 것,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것, 연구수행과 결과발표 시 연구대상자의 익명을 보장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설명문을 제시하면서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수집되었으며 자료수집에 앞서 S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여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그런 후 산과병동에서 초산모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를 면담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프로토콜대로 제공되기 위해서 연구대상 병원에서 가정간호파트에 재직 중이며 본 연구에서 실험군을 대상으로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가정전문간호사 1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자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교육책자에 대하여 50분씩 2회에 걸쳐 개별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연구자를 도와 자료를 수집할 연구보조자 1인에게도 연구의 취지와 설문지의 기입방법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질의응답과 추후 전화로 문의하도록 하였다.

#### ●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에게 연구 대상병원에서 퇴원 당일(산욕 3일째)에 일반적 특성, 모성정체성,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을 설문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 실험중재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 적용)

문헌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만 후 가정방문은 퇴원 후 2~4일 이내에 첫 방문이, 1~2회 이상 방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퇴원 후 2일째에 첫 방문을, 퇴원 1주 후 두 번째 방문을 하여 총 2회의 가정방문으로 이루어졌다.

실험군은 연구자가 개발한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진행순서에 따라 교육용 책자로 내용을 개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 후 어머니가 직접 수행해 보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직접수행 후에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1회 방문 시 약 40분 정도를 환자의 가정에 체류하며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병원 입원기간 중 집단교육을 통한 아기 돌보기 퇴원교육을 30분간 제공하였고 퇴원 후 집에서는 통상적인 산후조리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 ● 사후조사

사후조사에서 실험군의 설문지는 2회째 가정방문에서 중재가 종결된 후 가정전문간호사에 의해 배포되어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대조군의 자료수집은 실험군의 표집을 시작하기 전 시기를 달리하여 미리 제공된 설문지를 퇴원 1주 후 시점에 작성하게 한 후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우편으로 회수되지 않은 설문 내용은 연구보조자 1인이 전화로 설문하였다.

###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기호화하여 컴퓨터에 입력한 후, SPSS WIN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출산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chi^2$ -test로, 측정변수인 모성정체성과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정과 가설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정은 Cronbach's  $\alpha$ 로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사전 동질성 검증

#### ●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30세 미만이 34.5%(10명)이며 30세 이

상은 65.5%(19명)이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실험군은 51.7%(15명), 대조군은 48.3%(14명)였으며, 학력은 대졸이상인 경우가 실험군은 82.7%(24명), 대조군은 86.2%(25명)이었다. 가족형태는 부부만 사는 핵가족이 실험군은 82.8%(24명), 대조군은 89.7%(26명)였으며, 경제상태는 중이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실험군은 82.8%(24명), 대조군은 86.2%(25명)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질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1>.

출산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임신계획 여부가 실험군은 62.1%(18명), 대조군은 69%(20명)가 계획된 임신이었고, 아기의 성별이 남아인 경우가 실험군은 61.2%(18명), 대조군은 58.6%(17명)였으며, 전적인 모유수유는 실험군이 86.2%(25명), 대조군은 96.6%(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교실 참여여부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55.2%(16명)로 동일한 비율이었으며,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친정어머니인 경우가 실험군 55.2%(16명), 대조군 58.6%(17명)였으며, 그 다음으로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산후 도우미, 시어머니의 순을 보였다. 또한 출산관련 특성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가 없었다. 즉, 출산 관련 특성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질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측정변수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정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 산욕 3일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성정체성과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프로그램 제공 전 모성정체성은 실험군이 84.34(9.45)점, 대조군의 경우 87.34(11.28)점으로 두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319, p=.278$ ). 모성역할수행 자신감 역시 실험군이 89.93(15.85)점, 대조군의 경우 88.93(20.4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208, p=.836$ ). 따라서 실험 처치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성정체성과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가설 검증

● 모성정체성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livery Related Characteristics N=58

Variable		Exp. G(n=29) N(%)	Cont. G(n=29) N(%)	$\chi^2$	p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Yr)	20-<30	10(34.5)	10(34.5)	2.111	.348
		≥30	19(65.5)	19(65.5)		
	Job	No	14(48.3)	15(51.7)	2.072	.355
		Yes	15(51.7)	14(48.3)		
	Education†	Middle School	2( 6.9)	0( 0.0)	2.286	.515
		High School	3(10.3)	4(13.8)		
		University	24(82.7)	25(86.2)		
	Family†	Only Couple	24(82.8)	26(89.7)	2.080	.353
		with Parent in Law	3(10.3)	3(10.3)		
		with Parent	2( 6.9)	0( 0.0)		
Economics†	High	4(13.8)	2( 6.9)	1.020	.600	
	Middle	24(82.8)	25(86.2)			
	Low	1( 3.4)	2( 6.9)			
Planned Pregnancy	Yes	18(62.1)	20(69.0)	.305	.581	
	No	11(37.9)	9(31.0)			
Baby's Gender	Boy	18(62.1)	17(58.6)	.072	.788	
	Girl	11(37.9)	12(41.4)			
Delivery related Characteristics	Only Breast Feeding†	Yes	25(86.2)	28(96.6)	2.503	.286
		No	4(13.8)	1( 3.4)		
	Pre Delivery Class	Yes	16(55.2)	16(55.2)	1.040	.595
		No	12(41.4)	13(44.8)		
	Post partum Assistant†	Mother	16(55.2)	17(58.6)	1.607	.658
Mother in Law		5(17.2)	7(10.3)			
Paid Helper		7(24.1)	6(20.7)			
Relative		0( 0.0)	0( 0.0)			
Others		1( 3.4)	3(10.3)			

† )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Differences of the Maternal Identity and Confidence of Maternal Rol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on Pretest N=58

Variable		Exp. G(n=29) M(SD)	Cont. G(n=29) M(SD)	t	p
Maternal Identity	Me as a Mother	51.10( 7.03)	53.76( 7.15)	1.426	.159
	About my Baby	33.24( 3.71)	33.59( 5.05)	.175	.768
	Total	84.34( 9.45)	87.34(11.28)	.319	.278
Confidence of Maternal Role	Feeding related	31.41( 6.29)	31.31( 5.29)	.068	.946
	Sanitary related	14.93( 4.89)	15.79( 3.95)	-.739	.463
	Safety related	13.86( 2.96)	13.17( 2.51)	.957	.343
	Behavioral related	9.14( 2.46)	9.38( 2.04)	-.407	.686
	Health related	19.59( 5.80)	20.28( 4.90)	-.489	.627
	Total	89.93(15.85)	88.93(20.43)	-.208	.836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Differences of the Maternal Identity and Confidence of Maternal Rol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58

Variable		Exp. G(n=29) M(SD)	Cont. G(n=29) M(SD)	t	p
Maternal Identity	Me as a Mother	61.41(5.75)	49.66(6.58)	-7.251	<.001
	About my Baby	36.66(3.03)	31.45(4.24)	-5.383	<.001
	Total	98.07(6.73)	81.10(9.24)	-7.990	<.001
Confidence of Maternal Role	Feeding related	46.97( 6.44)	34.00( 5.94)	-7.970	<.001
	Sanitary related	22.86( 3.69)	14.79( 3.99)	-7.990	<.001
	Safety related	18.86( 2.33)	13.24( 3.46)	-7.260	<.001
	Behavioral related	14.97( 2.13)	9.72( 2.05)	-9.547	<.001
	Health related	30.52( 4.03)	18.86( 4.71)	-10.122	<.001
	Total	134.17(15.74)	90.62(17.04)	-10.109	<.00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가설 1인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모성정체성이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Table 3>,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98.07(6.73)점, 대조군은 81.10(9.24)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t=-7.990, p<.001),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모성정체성이 높았으므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또한 모성정체성을 구성하는 ‘어머니로서의 나’와 ‘내 아기는’ 해당영역 모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7.251, p<.001; t=-5.383, p<.001).

● 모성역할 수행 자신감

가설 2인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제공받지 않은 대조군 보다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이 높을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Table 3>,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134.17(15.74)점, 대조군은 90.62(17.04)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10.109, p<.001),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모성역할수

행 자신감이 높았으므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산육초기 초산모를 위한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퇴원 후 실험군에게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교육을 받은 실험군과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이 모성정체성과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을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왔지만 대부분 병원을 기반으로 하는 간호중재였으며 실제 산모들이 아기를 돌보는 현장에서 간호중재가 제공되는 가정방문을 통한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Lee 등(1998)의 연구에 의하면 산육기 산모의 70%가 산전진찰을 받은 병원에서 퇴원 2주 이내에 2회 이상 경험이 많은

간호사를 통해 신생아 관리에 중점을 두는 총괄적인 가정간호서비스를 요구하였다. Yoo(2001)의 연구에서도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산욕부의 가정간호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정간호를 기반으로 한 신생아 돌보기 교육프로그램은 산욕초기 초산모의 모성역할수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임을 밝히며, 본 연구의 가설검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모성정체성은 문헌에 따라 모성자존감으로도 표현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성정체성으로 보았다. 모성정체성의 지각은 모성역할 획득의 행위로써 나타나며, Mercer(1985)는 모성역할 획득은 “어머니가 역할에서 자신감을 성취하고 어머니로서 확고한 역할의 장안에서 모성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체감을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모성정체성은 모성역할 획득의 한 요소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퇴원 1주일 후 교육을 받은 초산모의 모성정체성이 대조군보다 실험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퇴원 후 3차례의 가정간호형 모성역할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산후우울과 모성자존감, 모아상호작용, 영아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Han(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Kim, Hwang과 Hong(1998)은 영아 양육관련 지식, 퇴원 후 양육계획 특성 등이 아기에 대한 모성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것은 실제 아기의 양육에 관하여 많이 아는 것이 실제 자신의 아기에 대해 그리고 산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병원에서 분만을 한 경우에 짧은 재원기간으로 인해 초산모가 입원동안에 모성역할을 획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정간호제도를 통해 퇴원 후 아기돌보기가 이루어지는 재가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본 연구프로그램은 모성으로서 아기와의 정체성 그리고 어머니로서 정체성이 올바르게 형성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모성정체성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퇴원 1주일 후 교육을 받은 초산모의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이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공한 간호중재에 대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수행한 연구와 비교하면서 논의를 하기 위해 가정간호를 통해 초산모를 대상으로 아기돌보기 활동에 대한 간호중재를 제공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정간호를 통해 수행된 연구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유사상황으로 병원에서 제공한 간호중재 연구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결과는 분만 후 12~14일경에

제공한 신생아돌보기 교육이 후 초산모의 신생아돌보기 활동에 대한 자신감에 미친 효과를 검증한 Jeong(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신생아돌보기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군의 신생아 돌보기 자신감 점수가 대조군의 것보다 높다고 한 Seo(199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Lee와 Kwag(1996)의 연구에서도 초산모 39명을 대상으로 신생아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전후에 신생아돌보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어떤 간호중재이던 결핍된 부분에 해당되는 역할을 보충해 주는 간호중재는 해당역할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도움이 아기돌보기 활동이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가정에서 제공될 때 더 효과적 인지에는 대해서는 추후연구로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 논문을 토대로 아기돌보기 활동 중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통적이고 실질적인 항목만을 선정하여 교육하였기 때문에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의 변화가 커서 중재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신생아 양육에 대한 교육이 영아돌보기 자신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Lee(1991)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Lee(1991)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정상분만뿐 아니라 제왕절개한 산모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두 분만 간에 다른 산욕기 회복기간 및 퇴원시기로 인해 신생아를 돌보는 시기나 준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통제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변수를 배제하고자 정상분만만 초산모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숙효과와 제3변수의 우려가 적은 분만 후 퇴원 1주일 경에 그 효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Lee(1991)의 연구에서는 퇴원 시 1회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회 이상으로 가정간호 중재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 설정된 2회 방문프로그램은 모성역할 획득에 이상적인 운영방안이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가 갖는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Meleis(1975)의 ‘역할획득 모형’을 토대로 구성된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초산모의 모성정체성과 모성역할수행 자신감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그 이론의 유용성을 지지하고 증가시켰다. 둘째, 본 연구는 가정간호서비스를 위한 초산모에 대한 실무적용이 가능한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초산모를 위한 가정방문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의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은 가정간



호서비스를 위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실무적으로 적용한 결과 모성역할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프로그램임이 입증되었으므로 임상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은 연구차원에서 더 확장되어 실제 임상실무로 정착이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본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정보완과 이를 연구로 검증하여 실무로 세팅되는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희망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산모에게 산육초기에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서울 소재 S전문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정상 질식분만 후 퇴원한 초산모 58명(실험군 29명, 대조군 29명)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 까지 3개월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산육 3일째 기초 자료와 모성정체성과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을 자가 보고식으로 조사한 후, 실험군에게만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이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퇴원 1주일 후에 모성정체성,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을 측정하였다. 자료들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이 초산모의 모성정체성과 모성역할수행 자신감 증가에 효과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정간호 실무현장에서 초산모와 아기를 포함한 그 가족들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간호중재로 활용한다면 초산모의 모성역할 획득 및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이 현 가정간호사업소의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 초산모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 도입하여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며 통상적인 가정간호에 비해 방문 체류시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자원소모가 많았다. 따라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가정간호기반 모성역할강화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원투입에 합당한 수가체계가 개발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Chae, Y. S. (2005). *Adaptation of maternal roles and postpartum depression of primiparas during early postpartum peri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ampson, S. J. (1989). Nursing intervention for the first three postpartum months. *Journal of Obstetrical Gynecological Nursing, 18*(2), 116-122.
- Han, K. J. (2001).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Home care nursing based program of maternal role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low birth weight. *Academic Seminar on Friday*,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16-23.
- Jang, I. S., & Jeong Y. G. (2003). A development of the social network model for the maternal role of first time moth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9*(1), 50-60.
- Jeong, K. H. (1994). *A comparative study of self confidence in newborn baby caregiving according to the education presence of primipara's car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Kang, S. J. (2001). The Effects of Phone Counseling on Maternal Role in Primiparous Moth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7*(4), 405-420.
- Kim, H. W. (1998). Model construction of maternal identity in primi-gravid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8*(2), 510-518.
- Kim, H. W., Hwang, M. S., & Hong, K. (1998). Primipara's maternal identity & self confidence for caring the baby during the immediate postpartum perio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4*(1), 65-77.
- Kim, H. S. Oh, K. S. Shin, Y. H. Kim, T. I. Yoo, H. N. Sim, M. K., & Chung, K. H. (2005).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tress in primiparas.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11*(3), 290-300.
- Koh, H. J.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role strain. and identity in first-time mothers with regard to employment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oh, H. J., & Lim, K. H. (2002). A comparison of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mothers' for the infant care between primipara and multipara.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8*(2), 217-228.
- Lee, C. H. (2011). Change of life during 30 years in Seoul. (2011.10.23). Retrieved October 27, 2011, from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SH.phpurl=life/201110/sp2011102314445695530.htm&cd=2302&ver=v002>
- Lee, K. H. (1982). The Study of Mother's Nursing Need and Perceived Her Role During Puerperium Perio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2*(2), 67-79.
- Lee, H. K. (1992). *Construction of a maternal role attainment model in primiparas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 University, Seoul.
- Lee, M. K. (1991). *A study on the effects of education in self confidence with newborn caregiv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Lee, M. L., & Kwag, Y. H. (1996). The effects of education on knowledge and confidence in postpartal self care and newborn baby ca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2(2), 246-255.
- Lee, J. S., Cho, S. Y., & Kim, E. I. (1998). A study on the home health care need of postpartum mothers. *Journal of Reproductive Medicine and Population*, 11(1), 11(1), 36-50.
- Lee, J. Y. (2006). *Fatigue, parenting stress and sleep patterns of women according to period of postpart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Lee, E. O., Lim, N. Y., Park, H. A., Lee, I. S., Kim, J. L., Pae, J. Y., & Lee, S. M. (2009). *Nursing Research and Statistics*. Seoul: Soomoonsa.
- Meleis, A. I. (1975). Role insufficiency and role supplementation: a conceptual framework. *Nursing Research*, 24(4), 264-271.
- Mercer, R. T. (1985). The process of maternal role attainment over the first year. *Nursing Research*, 34(4), 198-204.
- Park, H. S. (2005). *The effects of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utilizing NSASA(nursing child assessment sleep/activity) on primipar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sin University, Pusan.
- Park, M. S. (1991). *A Comparison on the confidence of baby caring between rooming in group and non rooming in group*.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Pharis, M. E. (1978). Age and sex differences in expectation for parenting among couples in a first pregnancy and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Rubin, R. (1967). Attainment of the maternal role part 1: Process. *Nursing Research*, 16(3), 237-245.
- Seo, Y. M. (1998). *The effect of education program in primiparas' knowledge, confidence and accuracy of behavior in newborn 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University, Jinju.
- Walker, L. O. (1981). Identifying parents in need, An approach to adoptive parent in need, An approach to adoptive parenting. *The American Journal of maternal-child Nursing*, 6, 118-123.
- Walker, L. O., Crain, H., & Thompson, E. (1986). Maternal role attainment and identity in the postpartum period : Stability and change. *Nursing Research*, 35(2), 68-71.
- Walker, L. O., & Montgomery, E. (1994). Maternal identity and role attainment: long term relations to children's development. *Nursing Research*, 43(2), 105-110.
- Yoo, Y. J. (2001). A study on the home health care needs of postpartum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7(4), 579-595.

# The effects of home care nursing based maternal role strengthening programs on the maternal identity and confidence of maternal role on first-time mothers

Chae, Mi Young<sup>1)</sup> · Hwang, Moon Sook<sup>2)</sup>

1) RN, Department of Nursing, Samsung Medical Center

2)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WooSuk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nd test a maternal role strengthening program based on home care nursing. **Methods:** A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employed. Changes in the variables(maternal identity and confidence of maternal role) were evaluated to test the effects of the developed program. Participants were first-time mothers receiving home care nursing from S Medical Center following normal spontaneous vaginal delivery(experimental group 29; control group 29).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December 2008 to February 2009. X<sup>2</sup>-test, Fisher's exact test and t-test were used to analyse the data. **Results:** Hypothesis 1, that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ing this program would experience a stronger maternal identity than the control group, was supported( $t=-7.990$ ,  $p<.001$ ). Hypothesis 2, that the experimental group would have higher confidence in their maternal role than the control group, was also supported( $t=-10.109$ ,  $p<.001$ ). **Conclusion:** The maternal role strengthening program based on home care nursing developed in this study was found to be an effective means of improving maternal identity and confidence of maternal role.

As these traits are developed once the baby is born, active nursing programs which provide continuous training and demonstrations to mothers are needed prior to hospitalization and following hospital discharge.

**Key words :** Home Care Nursing, Maternal Identity, Maternal Role confidenc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wang, Moon Sook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in WooSuk University 443, SamnyeRo,

SamnyeEup, WanjuGun, Jeollabukdo, 565-701, Korea

Tel: 82-63-291-1898 Fax: 82-63-291-1547 E-mail: msyellow45@hanmail.net